

# 신생아수 반세기 만에 최대폭 감소

미국의 신생아 수가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근 50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P통신은 전날 '질병통제예방센터(CDC)보고서'를 인용해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360만 명으로 2019년의 375만 명보다 4% 줄었다고 전했다. 작년 신생아수의 연간 감소 폭은 거의 50년 만에 최대라고 AP통신은 덧붙였다.

지난 2007년 미국에서 베이비붐이 일었을 당시 한 해 신생아 수는 430만 명이었다.

작년 한 해 미국의 가입 여성 1천명 당 출생아 수는 56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100여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960년대의 절반 수준이다.

여성이 한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64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 수치는 2007년 이후부터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을 시종일관 밑돌고 있다.

인종별로는 아시아계 여성의 출생아 수 감소 폭이 8%로 가장 컸다. 백인과 흑인 여성의 감소 폭은 각각 4%였으며 히스패닉계는 3%였다.

연령별 출산은 각 그룹 모두가 감소했다. 20~24세가 6%, 25~29세가 4% 감소하면서 각각 사상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사회 진출, 늦은 결혼 추세 등이 꼽힌다. 젊은 층의 소득이 줄거나 학비 상황 부담이 늘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경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부부가 질병과 금전 불안으로 출산을 미룬 영향도 일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나 줄었다.

미국은 유럽 등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출생아 수가 계속해서 감소했지만, 이민으로 전체 인구 증가는 이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민 유입도 둔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미국 전체 인구는 10년 전보다 7.4% 증가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번 CDC 보고서는 작년에 미국 전역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의 99% 이상을 검토해 작성됐다.

# 연방법원 “정부 ‘세입자 보호’ 퇴거 유예 조치는 월권”

미국 연방법원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퇴거 유예조치를 월권이라고 판결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대유행 기간에 세입자 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명령이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무효화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임대료를 못 내는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간 9만9천 달러 이하 또는 부부 합산 19만8천 달러 이하를 벌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자가 수혜 대상이다.

이 조치는 경제난 탓에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쫓겨난 세입자가 여러 거처를 전전할 경우 코로나19가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조치의 시행 기한은 지난 1월까지였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 날인 같은 달 20일 퇴거 유예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해 말 캘리포니아대학은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조치가 종료될 경우 쫓겨난 세입자들의 이동과 노숙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1만 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최종 결정이 퇴거 유예조치가 끝나는 6월 30일 전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판결이 실질적으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다른 2개의 법원에서 퇴거 유예조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저소득층 세입자가 퇴거당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우려한 반면, 임대인 관련 단체는 판결 내용을 환영했다.

미 인구조사국 추산에 따르면 820만 명의 세입자가 팬데믹 기간에 임대료를 밀렸다. 그러나 비영리단체 이빅션업이 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퇴거 신청은 예년보다 65% 감소했다.

## 청해 선생과 풀어 보는 한주간의 **띠별 운세**

5월 10일 ~ 5월 16일, 2021년

청해 역학 학술원(淸海 易學 學術院)  
예약전화: (714) 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p><b>쥐</b></p>	<p>천둥이 사방에 진동하듯이, 패기와 활기가 넘치는 운세입니다. 따라서 뜻을 세워 노력하면 순조롭게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둥이 소리만 크고 실속이 없는 것처럼,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일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큰일을 하기 전에는 먼저 목표와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b>말</b></p>	<p>바른 길을 지키면 무사태평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면 손해가 따를 것입니다. 성급하게 일을 벌이지 말고 여유 있게 준비하면서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새로운 일의 성공을 위해서는 첫출발이 좋아야 하지만, 또한 자신의 입장을 돌이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금전△애정○건강○</p>
 <p><b>표소</b></p>	<p>비교적 운세가 왕성하니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분쟁이 일어나기 쉬우니, 겸손하고 관대하게 처세해야 합니다. 위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여러 사람과 같이 일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뜻하는 일은 대인(大人)의 자문을 구하여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b>양</b></p>	<p>땅 위에 바람이 불어오면 주위를 관찰하고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하듯이, 세상의 흐름과 주변 사람들의 동태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포용성, 융통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평소 애덕을 쌓고 겸손하게 생활하면 복록이 저절로 생기겠으나, 타인을 무시하고 자기 본위의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의 신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전△애정○건강○</p>
 <p><b>범</b></p>	<p>지금은 실력이 있어도 환경에 적응하면서 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관망하는 자세로 실력을 배양하면 좋은 기회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한편, 변화하는 상황에 재빨리 적응해야 합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듯이, 주어진 상황과 때에 따라서 행동하면 길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b>원숭이</b></p>	<p>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생활해야겠습니다. 마음에 확실히 정한 바가 없으면 좋은 때를 놓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운세이므로 뜻밖에 횡재하여 재물이 생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행동해야 하고 방법은 금물입니다. 금전○애정△건강○</p>
 <p><b>토끼</b></p>	<p>지금은 경쟁이 치열한 때이므로, 좋은 일은 남보다 먼저 추진해야 하고 협력자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넓은 덕을 베풀고 화합에 힘써야겠습니다. 운세가 왕성하니 많은 수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섭과 거래를 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경쟁 상대보다 빨리 손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b>닭</b></p>	<p>주변 사람과의 조화를 우선하여 겸손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위사람이나 동료들 가까이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면 뜻과 같이 행통하겠으나, 스스로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한편, 소인배의 감언이설에 주의하고 안으로는 굳은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b>염</b></p>	<p>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다시 돌아온 격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유망한 사업을 발견한다면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차근차근하게 계획을 세우고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먼 곳까지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b>개</b></p>	<p>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운세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것처럼, 계획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을 추진하면 예상 밖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화단결이 중요합니다. 위사람에게는 공손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관대하게 처세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b>돼지</b></p>	<p>다른 사람의 의사를 따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혹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위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언행을 조심하고, 쓸데없는 시비를 가까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거나 금전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전△애정○건강○</p>	 <p><b>돼지</b></p>	<p>봄바람 가랑비에 초목이 다시 활기를 찾는 격입니다. 일상생활에는 희망적이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 이외에 내부적으로 불안전할 수 있으므로 큰일은 끝맺음을 분명히 맺어야 하고, 경솔하게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지 말아야 하고 파벌 싸움은 피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